저출생 해법, 중소기업에서 찾자

김승호의 시선

결론부터 말하자. 전체 기업 종사자수의 81%가 다니는 중소기업에서 저출생 해법을 찾자.

'신혼부부 결혼·출생 지원 확대, 가족친화적 소득세체계 개편, 자녀세액공제 추가,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공급,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난임부부 지원제도 강화 등….'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고령화 대책들이다. 물론 좋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해야 할, 아니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지난해 5175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인구는 2030년엔 5131만명으로 축소되고 2072년에는 3622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1972년 수준 인구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 이후 계속 하락해 지난 2023년엔 0.72명까지 떨어졌다. 결혼을 꺼려하고,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고 있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과 같은 과거의 인구 표어들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내용이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2341만명 종사자 가운데 1896만명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 물론 여기엔 소상공인도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에서 저출생 해법을 찾아야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경제 6단체 등은 지난해 민간 주도의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출범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 맏형인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범중소기업계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일·가정 양립에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소기업이 있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행복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언하면서다.

그러나 요식행위만 있었을 뿐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이 없어 아쉽다. 그 사이 정부가 바뀌었다고해서 모르쇠 할 일도 아니다.

국가는 근로자 10명 중 8명이 다니는 중소기업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한다. 규모가 되는 중소기업은 단독으로,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은 주변 기업들과 함께 운영하면 된다. 업종별 단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국가산업단지나 지역산단 등 기업이 모여 있는 곳은 좀더 수월할 수 있다.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국가는 법인세 인하 등 혜택을 주면 된다. 집과 회사가 멀어 아이를 데리고 출퇴근하는 것이 힘든 이도 있을 것이다. 이때는 집과 좀더 가까운 다른 회사의 어린이집에 내 아이를 맡기는 등 실현 가능한 방법도 있다.

전통시장에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위해 청년몰은 만드는데 시장 종사자들을 위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왜 없을까 궁금하기도 하다. 물론 이런류의 아이디어는 아이를 낳은 다음 이야기이긴하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지금까지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좀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선 전체 기업의 99%와 종사자의 81%가 몸 담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활용해보자.

/bada@metroseoul.co.kr

합치지 않아도 강하다

기자 수첩

차현정 〈산업부〉

글로벌 조선사들이 구조 개편에 사활이다. 중국은 자국 최대 조선그룹 CSSC(중국선박그룹) 산하 양대 핵심 자회사인 중국선박공업과 중국선박중공을 통합해 초대형 국영 조선사를 탄생시킬 준비를 마쳤다. 자산 75조원, 연간 영업이익 18조원 규모의 '공룡 조선사'가 탄생하는 것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마바리조선과 재팬마린유나이티드를 합쳐 '국가대표 조선사'를 출범시켰다. 경쟁력 분산을 막고 기술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다.

국내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는 각자의 자리에서 강점을 살리며 개별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친환경 LNG선은 물론이며 해양플랜트, 컨테이너선 등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글로벌 발주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우리 조선사들은 '몸집 불리기' 대신 '동맹 기반 협력'을 선택했다. 최근 주목받는 분야가 바로 MRO(유지·보수·운영)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단순한 함정 정비를 넘어 동맹국과의 방산 협력과 수출까지 연결된다.

특히 미국 해군이 보유한 대규모 함정이 노후화로 인해 가동률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한국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국영 정비조선소는 네 곳에 불과하고 수년 전부터 회계감사원이 역량 부족을 경고해 오고 있다. 결국 동맹국인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에서도 '해군 준비태새 보장법' 및 '해양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미 의회에서 발의됐다. 이로써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금지하는 법에서 예외를 두게 된 것이다.

국내 조선사들은 MRO사업 수주 기회를 잡는 데 적극적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7월 미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MSRA)을 국내 조선사 중 최초로 체결했다. 한화오션은 최근 미국 해군 보급함 '찰스드류호' MRO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양사는 미 해군의 MRO사업을 시작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신규 함정 건조까지 내다보고 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만들어내느냐다. 한국은 그 길을 택했다.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우지 않더라도 기술력으로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hyeon@

오늘의 운세

7월 18일 (음 6월 24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상대를 칭찬하면 2배로 돌아온다. **48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60년생** 힘들어도 해 오던 일을 계속 추진. **72년생** 겸손이 미덕이니 양보를. **84년생** 바쁜 가운데 게임을 배워보니 즐거움이 배가된다.

소 **37년생** 친구의 앞날에 영향을 주는 충고를 한다. **49년생** 결과만 챙기느라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61년생** 동료들과 등산계획을 세워본다. **73년생** 초대 받아 기쁘나 이로운 일은 없다. **85년생**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호랑이 **38년생** 학수고대하던 문서에 도장을 찍는 날. **50년생** 소띠 호랑이띠와의 거래가 유익. **62년생** 공부와 변화 속에 반드시 기회가 온다. **74년생** 직장에서 업무가 홍일점紅一點이다. **86년생** 빗방울이 떨어지니 아직은 때가 아니다.

토끼 **39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격. **51년생** 남이 던져주는 희망을 바라지 마라. **63년생**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건강에 신경 써보자. **75년생** 인내의 끝이 보이니 조금만 더 노력. **87년생** 모처럼 지인들과 기차로 여행을 가본다.

용 **40년생** 남의 도움에 고마움을 표시. **52년생** 핑크보라색이 행운을 준다. **64년생** 어려움이 곳곳에 있으니 심호흡을 하고 길을 나서자. **76년생** 하던 일이 뜻대로 되니 안심을. **88년생** 골이 깊을수록 산도 높은 법이니 힘을 내서 전진.

뱀 **41년생** 머리만 믿고 있다간 큰 낭패. **53년생**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 **65년생** 눈치 빠른 행동이 상사의 눈에 든다. **77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는 하루이다. **89년생** 서두르지 말고 가족과 상의해서 일을 처리.

말 **42년생** 감이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린다. **54년생** 물 흐르는 대로 일이 진행된다. **66년생** 연인의 연락을 받지만 반갑지 않다. **78년생**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자신의 허물만 드러난다. **90년생**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한 운세.

양 **43년생** 새로운 계약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55년생** 횡재운은 화중지병花中之餠이니 성실하게. **67년생** 멍석이 깔려도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 **79년생**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법. **91년생** 남 탓만 하지 말고 서류를 잘 살펴라.

원숭이 **44년생** 발로 뛰는 일을 찾아보자. **56년생**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기쁘다. **68년생** 섣불리 시작하지 말고 많은 준비를 하라. **80년생** 집안 농사짓는 땅에서 풍년이 되길 기원 드린다. **92년생** 가족의 형편을 살피고 도움을 줘라.

닭 **45년생** 일이 어려워도 풀어나갈 운. **57년생** 돈을 벌어 집이 생기니 이야니 좋을까. **69년생** 어제 결정한 일을 오늘 번복할 일이 있다. **81년생** 좋은 일이 뜻대로 되어 가슴 벅차다. **93년생** 사람 만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면 성과가.

개 **46년생** 반대하는 일에도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 **58년생** 밑 빠진 독에 물붓기하고 있는 상태. **70년생** 기도발원대로 이루어지니 부모님께 감사. **82년생** 문전옥답門前玉畓도 가꾸어 놓아야 기름지다. **94년생**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날.

돼지 **47년생** 북쪽으로 길을 나서면 행운이 있다. **59년생** 지는 태양은 막을 도리가 없다. **71년생** 가정이 화목해야 다른 일도 잘 풀린다. **83년생** 마음이 흐리니 꽃구경이 무슨 소용이랴만. **95년생** 남은 빚을 다 갚으니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

김상회의 四季

내 그릇만큼 채워가라

유명한 셀럽이나 성공한 기업가를 보면서, 가까운 지인이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주변 사람의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도 부럽다고 생각한다. 부럽기도 하지만 뭔가 허전함도 느낀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을 때 느끼는 허전함이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모든 걸 팔자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저 사람은 타고난 복이 많아서 그렇고 자기는 팔자가 기구해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마음이야 이해가 되지만 사주팔자는 단순하게 좋고 나쁨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사주는 각자의 그릇에 맞는 무게가 있다.

성공한 기업가의 팔자를 부러워하지만, 막상 그 자리를 얻으면 무게를 감당해낼 사람이 별로 없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책임감은 물론이고 끝없는 경쟁으로 남모를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는 화려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숨어있다. 각자의 그릇은 크기도 모양도 쓰임새도 다르다. 어떤 그릇은 수십억 재물을 담을 수 있지만 어떤 그릇은 작아도 소중한 행복을 담기에 적합하다. 중요한 건 자기의 그릇에 무엇을 채우느냐다. 그리고 그 채워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느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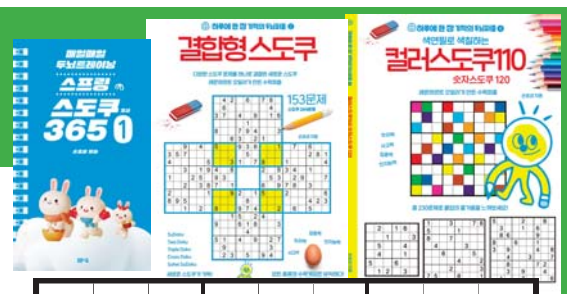
남의 큰 그릇을 부러워하면서 내 그릇이 작다고 좌절할 이유는 없다. 내 그릇에 담긴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하다. 결국, 각자의 팔자에 맞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자기가 타고난 역량과 재능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게 진정한 만족을 준다. 남의 그릇을 보면서 자기의 것을 우습게 여기거나 감당하지 못할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고 고통에 시달리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이다. 어떤 팔자든 행과 불행이 담겨 있으니 자기 그릇을 찾아가면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 한눈팔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9	5				1	2		4
7	3						9	
					3			
		3		7			1	
5		6				4		9
	7			5		6		
			1					
	9						8	7
3		7	5				6	2

	1			4	7	9		
	3						8	1
2					8			
7		5	8		4			
1								6
			7		6	8		5
			3					7
4	9						2	
		7	4	8			1	

8	1	6	5	4	7	9	3	2
5	3	4	2	6	9	7	8	1
2	7	9	1	3	8	5	6	4
1	4	8	9	5	3	2	7	6
9	2	3	7	1	6	8	4	5
7	6	5	8	2	4	1	9	3
6	8	2	3	9	1	4	5	7
4	9	1	6	7	5	3	2	8
3	5	7	4	8	2	6	1	9

9	5	8	7	6	1	2	3	4
7	3	1	4	2	5	8	9	6
6	2	4	9	8	3	7	5	1
2	4	3	6	7	9	5	1	8
5	8	6	3	1	2	4	7	9
1	7	9	8	5	4	6	2	3
8	6	2	1	9	7	3	4	5
4	9	5	2	3	6	1	8	7
3	1	7	5	4	8	9	6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1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1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